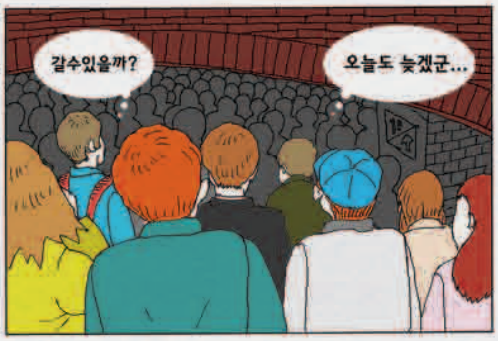
성승규 작가
뚤프의 그림여행
일러스트레이터

그땐 그랬지...

지하철

1993년 서울, 아침 7시 조금 넘은 시간
2호선 잠실역 지하철 승강장



사람이 너무 많은 그 시절
'푸시맨'이 등장하였습니다.

모두 무척 빠른 걸음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저만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침 출근 시간대엔
여성 전용칸으로 뛰어 들어가
멋쩍게 옆 칸으로 이동하기도 했었죠.

시골에선 얇은 버스 회수권을 사용하다
노란색 마그네틱 선이 있는 표가
마냥 신기하기도 했었죠.

표는 줄을 서서 역무원에게
현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역에선 지하철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곤 했었죠.

담배를 물고 조금씩 걷는 사람,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

푹푹 찌는 여름 날씨엔
지하철은 지옥철이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겨울이 나았죠.

그땐 에어컨이 없었죠.
대신에 창문을 통해 바람을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지하철 역에는 녹색 깃발을 흔들어
출발을 알려주시던 모습이
그립네요.